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직후 별도배포 # 공동배포 : 환경부		
담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언 (044-200-2056, 2057)
	녹조 대응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팀장 이헌우, 사무관 조영주 (044-200-2243, 2237)
		환경부 수질관리과	과장 조석훈, 사무관 김양동 (044-201-7060, 7061)
	규제 혁신	국무조정실 규제혁신정책관실	과장 최용선, 서기관 김정아 (044-200-2435, 2419)

여름철 녹조,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.

<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>

- ▶ '보 개방-오염원 차단-녹조 감시-먹는 물 안전' 등 분야별 총력 대응
- ▶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 마련, 녹조감시 강화

<온라인·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>

- ▶ △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△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
- ▶ △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 3개 분야 113개 규제 혁신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5월 24일(목) 오전,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.

○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「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」 과 「온라인·전자문서 규제 혁신방안」 을 심의·확정하고, 「민생경제 현안」 에 대해 점검했습니다.

* 참석 : 총리(주재),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·해수부·중기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금융위·공정위원장, 식약처장, 관세청·통계청장 등

◆ 여름철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 (환경부)

- 정부는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녹조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불안 해소 및 먹는 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- 이를 위해, 기존의 관리대책을 재점검하여 '보 개방-오염원 차단-녹조감시-먹는 물 안전'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

□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(보 개방) 녹조가 극심한 기간에 한해 일시적으로 소량 방류하는 보 운영 방식을 탈피하여 일부 보*는 물 이용에 장애가 없는 수준까지 상시적으로 개방하겠습니다.

* 금강(세종·공주보)·영산강(승촌·죽산보) 4개 보는 최대개방 지속, 그 외 보는 농업용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개방 검토

- 그리고, 보 개방영향 등을 평가하여 연말까지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.

② (오염원 차단)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·인력을 총동원하여 오염물질 제거를 통해 하천유입을 차단하고, 연말까지 핵심 오염하천별 맞춤형 대책*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* 대청호 녹조발생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 유입 차단을 위해 퇴비나눔 추진('18.1) : 축산농가의 처리 곤란한 축분을 무상 수거(쿠폰 지급) → 퇴비공장에서 퇴비로 만들어 보관 → 농가에서 퇴비 요청시 무상 배송(쿠폰 회수)

⇒ 한강수계(공릉천, 원주천), 낙동강수계(내성천, 진양호), 금강수계(용암천), 영산강수계(영산천, 만봉천)의 오염 원인별 맞춤형 대책 마련

③ (녹조 감시) 전국 44개소에서 운영 중인 녹조감시지점을 87개소*로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국민제보를 도입하여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

* 한강수계(4개소), 낙동강수계(24개소), 금강수계(7개소), 영산강수계(8개소) 등 43개소 추가

- ④ (먹는 물 안전)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조류독소 수질검사 결과를 적극 공개*하겠습니다.

* '17.10월부터 공개 개시 (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(<http://www.waternow.go.kr>))

- 향후, 정부는 지역주민·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하천 살리기 등 중소유역단위 국민참여*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* 마을하천 살리기, 생활속 실천운동(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), 농촌환경 개선 (영양물질 저감농법 지원 등) 등

◆ 온라인·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 (국무조정실)

-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관공서를 직접 방문·처리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3개 분야 113개의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.

- 이를 위해 △ 온라인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△ 종이문서의 전자문서 전환 △ 온라인 영업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
분 야	개선과제
① 온라인 행정	• 방문처리 민원 및 집합교육 → 온라인 허용 (90건)
	• 기관별 온라인 민원서비스 → 정부 통합서비스
② 전자 문서	• 종이문서 보관 의무 → 전자문서 허용 (11건)
	• 전자문서 법적 효력 명확화 →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일괄 대체
③ 온라인 영업	• 온라인 사업장 시설규제 완화 (6건)
	• 온라인 영업 진입규제 완화 (4건)

※ 규제혁신 관련 상세한 내용은 별도 배포한 보도자료 참조(5.23, 국무조정실, “행정서비스·영업 전반에 온라인·전자문서 활용 확대”)

◆ 민생경제 현안 (관계부처 합동)

- 이날 회의에서는 물가, 일자리, 주택시장 등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점검도 있었습니다.
- 특히 물가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‘지표상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일부 농산물 등 식재료 가격 상승은 우려스럽다’면서, ‘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해 줄 것’을 지시했습니다.
- 또한 조만간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되는 ‘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’에 대해서도 관련 내용을 소상공인들께 잘 알리고, 소상공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와 업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

※ (붙임) 올해 녹조대책의 추가·개선 내용

구분		여름철 녹조 대응 및 관리대책	
발생前 예방	① 4대강 보 수위조절	기존	▶ 한시적·소량 방류(필스방류) ▶ 일부 보 개방(17년~)
		추가 대책	● 8개 보 연중 상시개방 지속 ● 보 개방폭 확대 검토 - (응급조치) 상류댐 비상방류
	② 오염물질 유입차단	기존	▶ 광역적·장기적 오염저감대책
		추가 대책	● 「하절기 집중저감기간」 도입·시행 ● 지류·지천별 오염원 특별저감 추진
발생後 관리	③ 녹조 감시·대응	기존	▶ 조류경보제 운영·대응조치 등
		추가 대책	● 4대강 녹조 감시지점 확대 ● 「국민 녹조제보제」 도입·시행
	④ 먹는물 안전	기존	▶ 정수처리 강화 등
		추가 대책	● 조류독소 검사결과 공개
기반강화	⑤ 관리기반	기존	▶ 정부 주도의 하향식 대책
		추가 대책	● 중소 유역별 상향식 실천운동 융합